

보도시점 2023. 11. 14.(화) 17:30 배포 2023. 11. 14.(화) 16:00

녹색기후기금(GCF)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

- 녹색기후기금 10주년 기념식 개최

기획재정부·인천광역시·녹색기후기금(GCF)은 '23.11.14(화) 16:30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된 이후 '13년 12월 인천 송도에 개소된 세계 최대 기후기금이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의 개회사(대변인 대독)로 시작한 본 행사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가 환영사 및 축사를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10주년을 축하하였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등이 'GCF 10년간 성과 및 향후 비전'을 주제로 녹색기후기금의 향후 과제와 동반관계(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녹색기후기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지난 9월 발표한 3억불 공여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돕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독일, 호주, 이탈리아 등 각국 대사 40여명과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을 포함한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은행(KDB), 한국환경산업진흥원(KEITI) 등 국내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이사진이자 유치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혜경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강정훈 (jhkang11@korea.kr)
			연구원	이용진 (yj_lee14@korea.kr)

참고 1

녹색기후기금 10주년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 '23.11.14(화) 16:30~18:00, 인천 송도 컨벤시아
- 참석자 : 국내외 초청인사 약 100여명
 - (주최)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GCF)
 - (초청) 주한 대사,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후기관·기업 대표 등
- 프로그램(案)

순서	프로그램	비고
< 메인 이벤트 >		
개회 (16:30~17:00) ※ 식전 환담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축사(GCF 사무총장, 인천시장, 탄녹위원장, 파키스탄 대사) 	기획재정부
단체촬영 (17:0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촬영 	기획재정부
Break (17:10~17:20)		
패널토론 (17:2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 10년의 성과와 과제 	GCF 부사무총장 (헨리 곤잘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GCF 파트너십 증진 방안 	개발금융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사업 이행기관 파트너십 	GGGI 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국내 인증기구 파트너십 	산업은행 본부장 (최호)
폐회 (18:00~1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사 	개발금융국장
< 리셉션 >		
만찬 (18:05~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GCF 사무총장) • 축사(반기문 총장(영상), 인천시 부시장,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 (18:40~19:00) 인천시립 무용단 기념 퍼포먼스 	대내외 귀빈 (대사단 등)

참고 2

녹색기후기금(GCF) 개요

- **(설립)**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로서 '10년 설립 합의 후 '13.12월 사무국 송도 출범
 - ※ 年 1천억불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의 재정운영기구로 설립 합의('10년 COP16, 멕시코 칸쿤)
- 우리나라는 본부협정 체결('13.6월) 및 GCF 지원법 제정('13.7월) 등을 통해 GCF의 초기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
- **(운영방식)** 선·개도국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 정책결정 및 사업·인증기구를 승인하고 사무국이 이를 지원
 - (이사회 구성) 선·개도국 각각 이사 12명·대리이사 12명(총 48명, 비상임)으로 구성, 기여금과 관계없이 만장일치제 원칙 하에 운영
 - * 이사직 임기는 3년으로 우리나라는 '22~'24년(제4기) 이사직 수입
 - (사무국) '23.3월 기준 정규직 270명
- **(운영현황)** 역량 있는 인증기구 승인 및 이를 통한 사업 수행·관리
 - (인증기구) 한국 산은, KOICA, SK증권 포함 121개 기관 인증
 - (사업승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및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해 GCF 재원 135억불 지원, 총 243건 사업 승인
- **(재원조성)** 총 296억불 규모 조성(韓 6억불)
 - (초기: '13) 총 103억불 규모(韓 1억불), 實약정 체결은 약 93억불
 - (1차 재원보충: '20~'23) 총 100억불 규모(韓 2억불)
 - (2차 재원보충*: '24~'27) 현재까지 총 93억불 규모(韓 3억불)
 - * '23.10.5일 GCF 고위급 공여회의에서 국가별 공여액 확정 후 '24~'27년중 납입 → GCF측은 2차 재원보충 결과로 25개 국가가 총 93억불을 확보하였음을 발표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변인 김성욱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GCF 사무총장님,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파키스탄 대사님을 비롯한

각국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GCF 송도 본부가

어느덧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세계인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출범한 GCF가

현재는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GCF 10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GCF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행사는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GCF와 한국의 협력

내외 귀빈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 여름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5°C 기후 목표(1.5°C climate goal)는 요원하고 추상적인 목표로 보이나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손에 잡히지 않는(untangible) 목표를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행을 독려하는 것, 이것은 충분한 기후재원 확보와 효율적 사용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시급한 기후 재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GCF의 역할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은 앞으로도 GCF와의 협력을 공고화할 계획입니다

① 첫째, 한국은 지난 9월 G20에서 발표된 3억불 공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자발적 공여국으로서 GCF가 초기재원을 확충할 때부터 이미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번 2차 재원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GCF에 대한 3억불 공여 이행을 통해
지난 36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GCF의 전략계획(USP*)과
마팔다 두아르테 사무총장께서 제시한
50 by 30** 비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USP : updated strategic plan (2024~2027년 GCF 중기계획)

** 2030년까지 500억 달러의 기금 마련 캠페인

② 둘째,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사무소(CTCN),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아태지역 내 기후정책 및 기술육성을 선도할
ADB 기후기술 허브(K-hub)가 서울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GCF와 이들 기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녹색 기술을 확산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③ 셋째, GCF에 대한 당부사항입니다.

최근 기후재원의 수요가 많아질 뿐 아니라, 다양화되고
또 수요에 대응할 시급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재원의 조성과 활용에
GC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CF가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시급한 기후 지원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더욱 접근가능하고 사용가능한 기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3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의 기후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전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멀리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더 확대되고 공고해지길 바랍니다.

마팔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GCF의 앞날에 영광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한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 엑스포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GCF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